



# 李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3일 대통령실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비무장으로 쿠데타 막아낸 국민 용기 기리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국민 특별 성명을 통해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내고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들어서 대 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찬란한

오색 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 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주셨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

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성명 발표가 끝난 뒤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과의 기자 회견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외신 기자회견에서 “세계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문화강국, 경제강국, 군사강국에서 친위 군사 쿠데타라는 매우 후진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참으로 많이 놀랐지만, 또 관심갖고 지원해 준 덕분에 대한민국의 시민 혁명이, 빛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겨울나기 앞둔 참새 무리 3일 제주시 도두동의 한 농경지에서 참새 무리가 날아 오르고 있다.

강희만기자

## 공공체육시설·직장선수단 예산 감액 ‘도마’

### 3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

양 행정시 가용 재원 없자 8개월치 예산만 반영

의원들 지적에 “추경 통해 확보할 것” 답변 반복

내년 제주지역에서 전국·장애인체전이 열리는 가운데 양 행정시가 재정 여건이 안 좋다는 이유로 공공체육 시설 운영비와 직장 경기부 내년 예산을 8개월 치만 편성한 것에 대한 지적이 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흥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갑)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직장경기부 운영 예산을 8개월치만 편성하면서 선수들 훈련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선수단 운영도 불안정해져 사기와 경기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양 행정시는 내년 직장 경기부

인건비 등 운영 예산을 각각 10억 5000만원만 편성했다. 이는 8개월 치 운영비만 반영된 것이다.

이로 인해 직장 경기부 위탁운영하는 제주시·서귀포시체육회는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출전해야 할 선수들과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반영된 예산은 8개월치 뿐이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맺을지를 놓고 혼선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양 행정시 부시장은 “1년 치 운영비를 편성해야 하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8개월 치 운영비만 반영했다”며 “추경 등을 통해 나머지 운영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인 문화체육생활복합센터도 비슷한 상황이다.

서귀포시 안덕면 문화체육생활복합센터를 비롯해 표선면, 남원읍, 제주시 애월읍, 서부국민체육센터 등 대다수 공공체육시설 민간 위탁 운영 예산이 8개월치만 편성됐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기본적으로 이들 센터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매년 14억~15억원이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8개월치만 반영됐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고 물은 뒤 양 행정시가 또다시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답하자 “추경 때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꼭 필요한 것은 악착같이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업체 선정 ‘특혜 의혹’

김기환 의원 “선착순 평가위원 모집도 이례적”

서귀포시가 공영주차장 건립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소지

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귀포시 지난 9월 1일 공고한 해당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공법제안서 제출 안내문’을 제시하며 “이미 특정 업체의 공법이 적용된 것이었다. 해당 사업은 특허공법이 선정되기 전에 이미 설계에 반영된 정황이 있어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시는 ‘건설공사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모집 안내문’을 공고하며 평가위원 7명의 3배 수인 21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했다”며 “선착순 모집은 상당히 드문 경

우이고 관련 정보를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공고 당일 먼저 다 지원해 버리면 모집 절차에서부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월칠 서귀포시 부시장은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 별도로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 수 없는 맛



삼육식품 [www.sahmyook.co.kr](http://www.sahmyook.co.kr) Sam Yuk Dooyu 제주도총판 대표 윤봉실 064)757-1416

## 그랜드 보청기

‘한가위 특별 파격 할인! 소비쿠폰 사용자’  
24시간 상담 / 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칭복검사  
신촌들 혼자 절화 주십서!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 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서마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층  
제주시버스터미널